

##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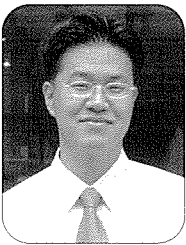
지난 호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궁금해하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2회에 걸쳐 설명하겠다. 먼저 타당도가 무엇인가 살펴보자.

### 1. 타당도란 무엇인가?

타당도란 간단히 말해서 측정도구(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개념,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만족도' 설문지에서 '당신

면 먼저 '구성개념(construct)' 이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구성개념은 바로 측정도구가 재고자 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무만족도 척도에서는 '직무만족'이 구성개념이 되고, 불안척도에서는 '불안'이 구성개념이 된다. 또한 장애인태도 척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구성개념이 되고, 자존감 척도에서는 '자존감'이 구성개념이 된다. 구성개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구성개념을 파악하고자 (눈에 보이는) 문항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하기



### 조성우

(사회복지사, 성균관대 박사수로, congruence@hanmail.net)

(전) 충청복지관 사회복지사 근무

(현) 성균관대 박사수로, 성균관대/서울신학대 강사

연구 : 이혼가정지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 분석, 청소년 자원봉사만족도 척도개발 등

저서 :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 (학지사),

사회복지조사연습 (정목출판사) 등

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자기만족)'라는 문항을 넣었다면, 그것은 타당도가 낮은 측정도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만족도 설문지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자기만족 문항은 서비스보다는 자신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문항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타당도는 이렇듯 측정도구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앞서 배운 신뢰도는 문항 내용보다는 측정점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측정된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 둘 간에는 차이가 있다.

### 2.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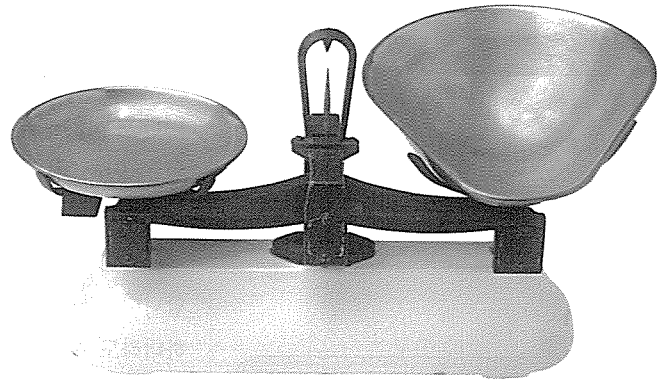
타당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

를 평가하는 문항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하자.

(문항1) : 나는 장애인과 단둘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문항2) :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당신은 이 두 문항 중에서 어떤 문항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라는 구성개념을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문항이 구성개념을 좀더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문항이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20개 문항으로 짜여진 측정도구에서 문항들이 모두 구성개념을 잘 대표한다면 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높이지게 되고, 반대로 구성개념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면 타당도는 낮아진다.



### 3.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들

그렇다면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용하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 (1)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는 방법


관련당사자들이 문항의 내용을 검토해서 직접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다. 첫째는 일반인들(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등)에게 문항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는 방법이다. 이것을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라고 한다. 우리가 타인 평가할 때, 보통 외모를 먼저 보듯이 설문지의 타당도를 평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은 그리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다. 둘째는 전문가들(박사급)에게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받는 방법이다. 이것을 '내용타당

도(content validity)'라고 한다. 전문가가 '측정도구 문항에 문제가 없는지?',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문항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한다. 이 방법은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간혹 어떤 전문가에게 타당도 검토를 의뢰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 (2) 통계를 사용하는 방법

통계를 사용해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타당도를 분석한다. 첫째는 '준거참조타당도(Criterion validity)'라는 방법이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다른 준거(기준)와의 관련성으로 평가한다. 예를들어, 만약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도를 알고 싶으면, '일주일간 부모-자녀간 대화 횟수'를 측정해서 이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된다.

만약 상관계수가 0.3이상이면 어느정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이다. 준거타당도는 내가 사용하는 측정도구와 객관적 준거(기준)간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판단하는데 비해, 구성타당도는 내가 사용하는 측정도구와 기존에 타당성을 검증받은 표준화된 척도간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자녀 관계' 척도의 타당도를 알고 싶으면, 양옥경, 이민영(2003)이 이미 개발한 (즉, 표준화된) "가족관계척도(FRS)"을 동일한 사람에게 측정한 후,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됩니다. 만약 상관계수가 0.3 이상이면 어느정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 타당도 분석방법들 간의 관계는 <그림>과 같다. 각각이 별도의 분석방법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은 문항이 구성개념을 잘 대표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타당도 분석 = 구성타당도 분석"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타당도를 제외한 나머지 타당도 분석 방법들은 모두 구성타당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타당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림> 구성타당도와 다른 타당도와의 관계

